

# 통해명승 송도원에 만발하는 아이들의 웃음과 환희

## 세 상 에 부 럼 없 어 라

아름다운 동해의 기술에 행복에 넘친 아이들의 웃음소리 한껏 넘친다.

그림같이 황홀하여 눈이 부신 땅과 바다에 세상에 자랑할만 한 아이들의 호텔, 아이들의 궁전으로 솟은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5일까지 제29차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이 진행되었다.

예로부터 《백사청송》으로 불리워온 송도원, 마식령산줄기의 높고낮은 봉우리들과 여기에서 뻗어내린 산발들을 배경으로 하여 펼쳐진 조선동해의 맑고 푸른 물결과 은보라 반짝이는 하얀 백사장, 푸른 소나무숲과 붉게 핀 해당화, 파도를 넘나드는 흰 갈매기들이 잘 조화되어 한쪽의 그림마냥 아름다운 바다가풍치를 이룬 이곳은 오래전부터 세계적인 명승지로 되어왔다.

바로 이러한 곳에 아이들을 위한 야영소가 훌륭하게 일떠선것은 절세위인들의 송고한 후대사랑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주제48(1959)년 6월 몸소 송도원소년단야영소의 터전을 잡아주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건설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셨다. 그리고 여러차례나 야영소를 찾으시어 송도원의 제일 좋은 자리에 야영소를 지어준것은 잘한것이라고, 제일 좋은것은 어린이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야영소운영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세심히 지도해주셨다.

어버이수령님의 송고한 후대사랑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1985년 7월 이곳 야영소를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로 명명해주시고 일촉즉발의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었던

1993년 3월에는 훌륭히 개관완공된 야영소를 찾아주시어 친어버이십정으로 아이들의 야영생활을 보살펴주시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명당자리에 잡아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더 훌륭하게 일떠세워주신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는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손길아래 세상에 자랑할만 한 아이들의 호텔, 아이들의 궁전으로 그 면모를 일신

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해 5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몸소 찾으시고 야영소를 훌륭히 개진하는것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령도업적을 빛내이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야영소를 개진하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파업과 방도를 가르쳐주시었다.

올해에만도 세차례나 야영소를 찾아주시고 세상에 이런 야영소

가 없을것이라고, 나라의 귀중한 보배들인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절절하게 말씀하시며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풀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해같은 사랑과 은정은 군인진실자들에게 반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세상에서 으뜸가는 야영소를 훌륭히 일떠세우도록 한 창조와 기적의 원천으로 되었다.

지금도 야영소구내에 세불인

《세상에 부럼없어라!》는 구조를 보시고 저 구조는 우리 아이들이 자기들을 왕으로 내세워주고 사랑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에 대한 고마움을 그대로 더한 노래라고, 우리가 고생을 달게 여기며 투쟁하는것도 우리의 아이들과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잘살게 하려는데 있다고 말씀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뜨겁게 안겨온다.

그렇게 멋진 야영소를 마련해주시고 온 하루 아이들속에 계시며 축구경기와 축하공연도 함께 관람하시고 축포의 황홀경도 함께 보아주시는분.

정녕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있어서 제일 기쁜 순간은 아이들속에 계시 때이고 그이께 있어서 제일 행복한 순간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높이 울려 퍼질 때이다.

세상에 부럼없어라! 이것은

복받은 공화국의 어린이들만이 터칠수 있는 행복의 노래,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칭송의 노래이다.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고마움을 그대로 더한 노래-《세상에 부럼없어라!》의 글밭이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의 곳곳에 새겨져 빛나고있는것이 아니겠는가.

이곳에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온 야영생들은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서서 누구나 깊이 감동되었다.

고마움과 감동의 그 마음 안고 탄자니아소년야영단의 야영생들은 매일 아침일찍 일어나 야영소에 모셔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에 인사를 드리고 동상주변을 깨끗이 관리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다른 나라 소년야영단의 야영생들도 경애하는 원수님을 아버지로 모신 조선의 아이들이 정말 부럽다고 찬란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돌아본 한 해외동포는 자기의 흥분된 감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송도원의 푸른 소나무를 밟아 동해의 푸른 물을 먹삼아 나는 세기의 하늘가에 이렇게 쓰고 싶다. 조국과 민족의 찬란한 미래를 보여거든 아이들의 웃음과 환희가 만발하는 여기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로 오라고...》

절세위인들의 손길아래 일떠선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가 하늘 높이 울리는 곳, 아이들의 웃음과 환희가 만발하는 곳이다.

글: 본사기자 김춘경  
사진: " 심용석



## 청신한 솔숲향기, 시원한 바다물이 안겨주는 즐거움



《야!-》 역시 여름은 아이들을 위한 계절이라는 말이 맞는듯싶다.

너도나도 신나게 소리를 치며 알다투어 바다물속으로 뛰어드는 아이들의 천진관만 한 웃음은 여름해살만큼이나 눈부시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의 즐거움 나날들중에서 아이들이 제일로 좋아하는것은 해수욕으로 보내는 시간이다. 그래서인지 해수욕은 8일간 야영의 나날 매일 진행되는 일과이다.

지금으로부터 700여년전 이곳에서 살던 사람들이 바

다바람과 모래의 이동을 막기 위하여 소나무를 옮겨심기 시작한 때로부터 송도원에는 솔밭이 생겼으며 19세기말~20세기초부터 해수욕장으로 리용되었다고 한다. 청신한 솔숲향기가 은은히 풍겨오는 송도원에서의 해수욕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독특한 즐거움을 안겨주고있다.

해변에 한껏 달아오른 하얀 모래밭속에 폭폭 발이 빠져들며 따가움을 느끼는 맛도 좋지만 푸른 바다물속에 침범 빠지는 순간의 상쾌감과 재미는 그 어디에 비길바 없는것이다.



맑디맑은 바다물에서 누가 수영을 잘하는가 내기를 하는 총각애들이 있는가 하면 꼭디고운 모래밭에서 조가비를 쫓느라 여념이 없는 처녀애들의 모습도 보인다.

소년야영단은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의 급강하물미끄럼대를 멋지게 형성하였으며 탄자니아소년야영단은 자기 나라의 지도를 모래밭위에 펼쳐놓았다.

나는 조선을 사랑하는 벗들중의 한사람이다. 지난 시기 여러번 조선을 방문하였지만 이번에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있다고 말할수 있다. 사랑하는 두 아들 세암과 리암을 데리고 제29차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에 온것이다. 현재 만아들 세암은 금관소학교 6학년에 다니고있고 별재아들 리암은 벨파스트 세인트 메리소학교 5학년에 다니고있다. 이번엔 아들들을 데리고 여기에 온것은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하여 알게 하고싶은 마음에서였다. 서방의 선전과는 달리 얼마나 훌륭한 나라고 아이들을 왕으로 내세워주는 좋은 나라라는데 대하여 자기의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하게 해주고싶었다. 야영은 첫날에 리암이 좀 앓았는데 야영소의 봉사원들과 의사들은 매우 친절히 그

예를 간호해주었고 값비싼 영양제까지 써주었다. 문득 말에생각이 났다. 몇년전 차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미처 돈을 가져오지 못하여 수술이 늦어보니 살아날수 없었다. 조선의 무상치료제가 얼마나 좋은 제도인가를 느꼈다. 지구상 어디에나 아이들은 있다. 아이들은 인류의 희망이고 꿈이며 미래이다. 그러나 이 지구상에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불행하고 죽어가고 시들어가고있는것인가. 지금 이 순간도 많은 아이들이 불행과 학대의 대상으로 쓰러져가고있는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날을 따라 높아가고있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는 단순히 아이들의 놀이터만이 아니라, 대개 다른 나라의 야영소들은 천막이나 치고 야외놀이하는것이 전부이지만 이곳에는 수족관, 조류사, 등산식보급실, 로리강의실을 비롯하여 폭넓은 지식과 상식을 안겨주는 곳도 있고 물놀이장, 저물집,

각종 유희오락장들을 비롯하여 종합적인 놀이장들이 다 있다. 아마도 우리 애들의 가슴속에 송도원에서의 야영생활은 일생의 추억으로 아름답게 새겨질것이다.



나는 조선지도를 상정한 목걸이를 한상 몸에서 떼어 놓지 않고있다. 그 목걸이는 이 지구상에 아름다운 나라 조선이 있고 그곳에서 선량한 사람들이 살고있음을 상기시켜주며 내게 생의 활력을 북돋아주고있다. 나는 우리 애들이 조선의 아이들처럼 아름답고 밝고 깨끗하게 자라도록 앞으로 조선에 자주 오겠다. 아일랜드공민 이리나 말렌코

## 바다처럼 넓고넓은 조국의 사랑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가 멋있게 꾸려졌다는 소문을 듣고 조국에 왔다. 7월 29일 오전 입소식을 하고 오후에는 호실에 짐을 풀었다. 저녁에 식사하러 식당에 가니 야영생들의 생일상이 차려져있는것이였다. 조국의 야영소에 왔다는 흥분으로 나 자신도 생일을 잊고있었는데 너무도 좋았다. 그날에 생일이 세명 있었는데 두명은 로씨야의 남학생들이었고 한명은 나였다. 집을 떠나 생일을 쇠보기는 처음이었는데 정말 잊지 못할 추억으로 될것 같았다.

조국의 야영소에 왔다는 흥분으로 나 자신도 생일을 잊고있었는데 너무도 좋았다. 그날에 생일이 세명 있었는데 두명은 로씨야의 남학생들이었고 한명은 나였다. 집을 떠나 생일을 쇠보기는 처음이었는데 정말 잊지 못할 추억으로 될것 같았다.



너무도 놀랍고 기쁘기도 하여 감사의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우리와 함께 온 김정자선생님도 미처 내 생일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얘기하는데 야영소의 선생님들은 이렇게 풍성한 생일상을 차려주었던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한 생일상을 보면서 나는 생각했다. 해외에서 온 나의 생일까지 차려주는 조국의 사랑은 저 송도원의 바다처럼 넓고 넓구나. 재중동포소년야영단 야영생 강명림



## 단상 원수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야영소로

8월 2일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보트장에서서는 세계 여러 나라 야영단들의 보트경기가 진행되었다.

《영차, 영차》 소리를 치며 힘차게 노를 저어가는 야영생들의 모습은 날이 갈수록 더욱 재미가 나는 야영의 낮과 밤을 보내는 기쁨과 활기에 넘쳐있었다. 누가 제일먼저 보트를 몰아가는가.

여러가지 색깔의 구명조끼들을 귀엽게 입고 때로는 방향을 잃어가며 보트를 몰아가는 아이들의 얼굴들에는 승벽심과 함께 동심의 세계에서만 옛보이는 장난기가 만발하였다.

푸른 물결을 헤치며 맨앞에서 내달리던 조선소년야영단의 보트가 탄자니아소년야영단의 보트와 부딪치면서 가르르 웃음판을 터치기도 한다.

얼마나 행복한 아이들의

모습인가. 산뜻한 보트들을 타고 한점 구김살없이 웃어대는 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보느라니 문득 자그마한 목선이 떠오르며 가슴이 찡찡해진다.

조국의 서남전선 최남단 최대열점지역의 방어대들을 찾아 파도를 누비던 작은 배, 바로 그 배를 타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머나먼 장제도와 무도의 병사들을 찾아가시지 않았던가. 생각조차 할수 없는 일이었다. 한 나라의 령도자를 모시기에는 너무도 작고 소박한 배였다.

아이들이 탄 보트에 넘실대며 출렁이는 맑은 물결을 보느라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타신 작은 배를 치던 그날의 파도가 눈에 어려오고 아이들이 물장난을 치며 웃음을 적시는 모습을 보느라니 파도에 젖어들던 그이

의 옷자락이 눈물겹게 안겨온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그마한 배를 타시고 이어가신 위험천만한 전선시찰의 그 길이 있어 저렇듯 맑고 행복에 넘친 아이들의 웃음이 있는것이 아니겠는가.

지금 이 시각도 그이께서는 세상에 부럼없이 무럭무럭 자라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힘을 얻으시며 아이들이 즐겨부르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우리 나라의 그 어디서나 더 높이 울리게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후대들을 위한 사랑의 천만리길을 끝없이 이어가신다.

《야, 우리가 이겼다!》 아이들의 함성에 생각에서 깨어난 나의 시야에 야영소 보트장언덕위에 세워진 구조가 뜨겁게 안겨들었다. 《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야영소로!》



《저녁어스름이 깃들기 시작됐다. 유쾌한 첫 하루 야영일과를 마치고 호실에 돌아오니 포근한 침대가 노그라진 내 몸을 따뜻이 품어주었다. 솔솔히 잠이 들려는것을 애써 참으며 오는 하루동안 있었던 즐거운 기억을 떠올려보고 눈을 떴다. 그런데 나의 눈앞에 신비한 별의 세계가 펼쳐지는것이 아니겠는가. 파이란 하늘에 자그마한 별들이 반짝반짝 빛을 뿌리고있었다. 너무도 신기하였다. 그제서야 관리원아저씨가 해주던 말이 떠올랐다. 우린 아이들이 기때문에 밤이 되면 무심중을 탈가봐 반짝반짝 빛이 나는 야광벽지를 야영소의 호실마다 붙여주었다는 얘기가

다. 정말 멋있다. 유치원시절 내 가슴에 반짝이던 별같은 별들이 있고 바닥에도 별들로 장식되어있다. 수족관에도 가오리, 먹도미, 줄도미들이 유유히 노니는 별수조가 있고 실내물놀이장의 천정에도 별들이 가득하다. 야영소에 가득한 크고작은 별들, 단 순히 건축장식으로만 보이지 않는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도 따다주는 조국의 사랑이 그대로 어려있는듯싶고 아이들에게 고운 꿈을 안겨주며 빛나는듯싶다. 야영소의 별들은 예경이만이 아닌 모든 야영생들의 가슴속에 일생의 추억으로, 아름다운 꿈으로 깊이깊이 새겨질것이다.

이것이 야영1각 422호실에 든 장예경학생이 쓴 일기의 한대목이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 가는 곳마다 동심에 맞는 장식들이 많다. 세계명작을 화집에 나오는 그림들도 있고 조각상도 있고 꽃들도 많다. 그중에서도 별모양장식

별로 살았다.》 야영1각 422호실에 든 장예경학생이 쓴 일기의 한대목이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 가는 곳마다 동심에 맞는 장식들이 많다. 세계명작을 화집에 나오는 그림들도 있고 조각상도 있고 꽃들도 많다. 그중에서도 별모양장식